



예진호 마르첼리노 | 생활성가 가수

경쟁자에서 동료로

모태 신앙이었다가 직장 발령으로 인한 타지의 낯선 성당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던 저는 지인을 따라 우연히 가게 된 한 성당의 성가대에 입단함으로써 마침내 냉담을 풀고 다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점점 나이를 먹어갔고, 청년회에서 영원히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 들어서니 또래 단원들은 하나둘 퇴단을 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다음 진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땅한 길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청년 성가대에 계속 남아 있기에는 다소 많고, 성인 성가대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어린, 애매한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제 머릿속에는 “나이 등 다른 제한 없이 평생 즐겁게 성가를 부르며 활동할 수 있는 단체는 있을까?”라는 고민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한 번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성가대에 저를 소개해 줬던 형이 곡을 써줄 테니 cpbc창작생활성가제에 나가보지 않겠냐며 권유하였고,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성가제에는 성가를 부르는 분들이 많이 오시겠지?”, “이곳에서 나를 알리면 나에게도 계속 성가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거야.”라는 확신이 들었고,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하여, 며칠 후 본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워크숍의 기억은, 지금도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앞둔 총 11팀의 경쟁자들은 함께 모여 나눔을 하고 찬양을 하며, 자연스럽게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찬양하게 될 동료로 서로를 인식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함께 마음을 모아 성가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얼마 후 성가제에서 다시 만난 저희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였고, 성가제가 끝나면 다시 뭉쳐서 함께 찬양을 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하나의 팀 ‘열일곱이다’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열일곱이다’에는 마음이 맞는 다양한 талан트가 있는 새로운 멤버들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고마운 분들의 도움 덕분에 꾸준히 찬양을 하는 팀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며 매월 17일, 새로운 성가로 신자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한 개인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찬양하고 싶다는 저의 꿈을 주님께서 ‘열일곱이다’를 통해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활동을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를 이끄는
성경구절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골 2:14, 13

이현정 아미카
의정부교구 구리성당